

# 사업 개요

---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업실행팀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사업실행팀 명단(총 6명)

1. 우르트나산: 사업총괄자(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이사장)
2. 알탄투야: 담당자(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3. 부안토그토흐: 전문가(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4. 케를렌투울: 엔지니어(국립라디오방송국)
5. 간바타르: 연구자(국립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6. 보롤조이: 연구자(국립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 활동 내용

- 사업실행팀의 구성원들은 몽골 국립라디오방송국에서 열흘 동안 진행된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의 자기 테이프를 구분하는 방법과 테이프들의 구조 및 분류, 그리고 “CUBASE”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 기술과 방법론 등에 대한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언어문학연구소에서 실제 장비들을 활용한 3일간의 적용 훈련을 완수하였다.
- 사업 기간 동안 사업실행팀의 구성원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사업 실행을 위한 계약서가 구성원들 각각에 의해 작성되었다. 팀의 구성원들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개진하였다.
-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 언어문학연구소에 제공되었다. 주요 장비들은 컴퓨터, UPS, 믹싱 콘솔, 사운드 카드, 그리고 헤드폰 등이었다. 몽골 국립라디오방송국의 프로듀서인 바트나이칸과의 공동 작업으로 실행팀은 모든 필요한 장비와 도구 등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소프트웨어와 장치들도 설치하였다.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실행팀 구성원들은 필요한 운영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았다. 진행과정에서 직면한 한가지 문제는 노후화된 테이프들을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찾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예정보다 지연되었다.

당초 연구소에 소장된 자기 테이프들을 재생하기 위한 장비의 속도는 9.5cm/초, 19cm/초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자료의 복원과 디지털화 과정에서는 실제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자기 테이프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간의 지연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일부 테이프들은 재생을 위해 별도의 재생기가 필요하였고, 재생 속도 역시 4.7cm/초, 혹은 2.7cm/초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4.7cm/초, 혹은 2.7cm/초 속도의 재생기는 몽골에서 1960-80 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더 이상 쓰이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의 진행을 더욱 더디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수소문 끝에 필요한 장비를 구할 수 있었지만 열악한 보관 상태로 인해 대부분의 자기 테이프들은 건조되거나 다른 테이프들과 들러 붙거나, 혹은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각각의 테이프들을 재생하기 위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장비들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의 복구와 디지털화 과정을 더욱 지연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오래되고 낡은 장비들은 수 차례 고장나기를 반복하였다. 몽골 국립라디오방송국의 기술지원팀과 복구팀의 지원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고장난 장비들을 수리할 수 있었다.

위에 서술한 활동들이 완료되고 낙후된 자기 테이프들의 시범적 복구를 통해 드디어 본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업의 출범식은 2012년 1월 5일, 언어문학연구소의 컨퍼런스 홀에서 거행되었다. 출범식에는 교육문화과학부의 무형유산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부의 자갈사이간, 문군톨, 사업총괄자인 우르트나산, 학자이자 언어문학연구소의 소장인 투무르고구, 문화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부서의 윤텐바트, 무형유산 전문가, 프로젝트 팀원들, 연구소의 행정직원들 및 각종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사업 출범식에는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부의 문군톨과 사업 총괄자인 우르트나산, 언어문학연구소 소장인 투무르고구의 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사업의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특별한 가치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별히 본 사업을 업무적,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센터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였다. 발표자들은 또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그들의 강한 의지를 표하고 최대한의 협조를 약속하였다. 사업 출범식에 참석한 귀빈들은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의 복구 작업에 대한 현장 활동을 소개받았고 사업실행팀에게 본 사업의 귀중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하였다. 참가자들과 발표자들은 본 사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조언과 방법들을 함께 나누었다.

본 사업의 주요 목표는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을 복구하고 디지털화하며 분류하여 서사시, 민화, 마두금 설화, 민요, 축도, 시, 수수께끼, 속담, 구비전통, 샤머니즘, 불교 전통, 전통 관습, 그리고 언어문학연구소 아카이브 소장된 학술자료 등 1200 시간 분량의 녹음 자료들 중에서 713 시간 분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각 자료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713 시간의 디지털화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분류될 것이다.

## 분류

자기 테이프들을 복구하고 디지털화하기 이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어떻게 분류할지를 정하는 일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현대적 형태의 구비문학과 표현예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1. 서사시

#### 1.1. 동물에 관한 서사시

#### 1.2. 영웅 서사시

### 2. 멜로디가 있는 설화

### 3. 설화

### 4. 전설

#### 4.1. 기원에 관한 전설

#### 4.2.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전설

#### 4.3. 교훈적 전설

#### 4.4. 땅과 물에 관한 전설

### 5. 신화

#### 5.1. 창조 신화

#### 5.2. 별에 관한 신화

#### 5.3. 식물과 물질에 관한 신화

#### 5.4. 가축, 야생동물, 새에 관한 신화

#### 5.5. 사람과 사회문화에 관한 신화

## 6. 노래

6.1. 장가(長歌)

6.2. 민속 단가(短歌)

6.3. 작사자가 있는 노래

## 7. 민속극

7.1. 대화형식 노래

7.2. 대화형식 시

7.3. 오락 용어

## 8. 관습 및 의례와 관련된 기타 구전 표현

8.1. 주문 및 주술

8.2. 저주

8.3. 신주(神酒) 또는 성유(聖油)와 관련된 용어, 길조와 관련된 용어

## 9. 축도

## 10. 시

## 11. 샤머니즘과 관련된 구비 문학

## 12. 불교와 관련된 구비 문학

## 13. 기타 구비 문학

13.1. 속담

13.2. 몽골 삼화음

13.3. 수수께끼

## 14. 리듬이 있는 시

## 15. 스토리텔링

연구팀은 위와 같은 분류 체계를 따라 자료들을 분류하였고, 특별히 몽골의 소수민족들의 각 지역 방언으로 이루어진 구비전통과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 결과 할하,

오이라트, 브리야트, 우즈칭 등 소수민족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15 번 카테고리인 ‘스토리 텔링’ 항목 내에 ‘지역방언’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분류하였다.

위에 소개된 자료들 외에도 주요 학술대회에서 학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발표된 자료들이 1959 년부터 언어문학연구소 아카이브에 축적되어 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분류체계에 추가되었다.

## 16. 학회 녹음

16.1. 몽골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학회 발표 녹음

16.2. 학위과정 학생들의 학회 발표 녹음

16.3. 기관의 보고 발표회 녹음

또한 1950 년대부터 민속공연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됨에 따라 마두금, 츠르, 허미와 이스게리 등의 장단에 대한 후원이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대규모의 공연예술축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녹음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분류 항목에 추가되었다.

## 17. 공연 녹음

## 18. 민속공연예술, 독주 음악 녹음

무엇보다도 위의 녹음 자료들을 디지털자료의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원본 자료의 보존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원본 자료들 역시 위의 분류체계를 따라 분류되었다.

2011 년 12 월, 본 사업의 주요 업무인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의 디지털화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디지털화 작업의 전반적인 업무는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부안토그토흐, 언어문학연구소의 간바타르, 국립라디오방송국의 케를렌투울 등 세 명의 전문가가 담당하였다.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된 녹음 테이프에는 설화, 전설, 노래, 축도, 시 등 다양한 형태의 표현물들이 한 곳에 함께 들어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일부는 10 시간이 넘는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 테이프에 걸쳐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테이프 번호 0624 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저장번호	0624-05-09	0624-04-12	0624-03-15	0624-02-06	0624-01-10
분류	추도	낭송	연설	장가	시
내용	게르만의 따뜻한 추도	5 명의 칸에 관한 낭송	몽골 서사시에 관한 연설"	높은 알타이의 경관	알타이 산맥에 관한 시
공연자/연행자/ 이름/나이/성별	체렌들람 바얀골 소음, 유부르칸가이 지방	조도브 서사시연행자, 유부스 지방	조도브 서사시연행자, 유부스 지방	소렌(65 세) 두트 소음, 헛드 지방	아비르메드(39 세) 두트 소음, 헛드지방
시간	8.26		29.2	2.14 мин	16.13 мин
테이프의 통	B	B	A	A	A
기록일	X:02.02.12	X:02.02.12	X:02.02.12	X:02.02.12	X:02.02.12
속도	9.5 cm/초	9.5 cm/ 초	9.5cm/ 초	9.5 cm/ 초	9.5 cm/ 초
형식	44100Hz 16 bit	44100Hz 16 bit	44100Hz 16 bit	44100Hz 16 bit	44100Hz 16 bit
상태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설명					
담당자	간바타르	간바타르	간바타르	간바타르	간바타르

## 서사시

서사시는 시의 가장 큰 장르로서, 민속의 발달과 함께 형성되었다. 몽골의 유구한 문화유산 표현물들은 대부분 조상 중에서 용감하게 싸운 족장이나 전사에 관한 설화 등에서 기원한다. 유명한 서사시 연행자에 의해 녹음된 10 개의 서사시가 언어문학연구소의 기금으로 보관되었다. 하나의 서사시 공연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무려 10 시간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서사시 테이프들은 하나의 서사시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테이프 내의 자료들을 구분하고 분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서사시의 복구와 디지털화 작업은 다른 자료들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초루박사는 서사시들을 발굴하고 녹음하고 수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그가 녹음한 자료들 중에는 유명한 서사시 연행자인 바타르 아비르메드가 공연한 ‘두타이 문두르 칸’, ‘아르길 차간 유브군’, ‘탈린 칸 보돈’, ‘나란게렐 칸’, 그리고 ‘줄 아르다르 칸’ 등의 서사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다른 표현물들과 비교했을 때 녹음 상태도 매우 좋은 편이었다. 서사시는 전체 700 시간의 녹음 자료 중에서 19 퍼센트인 136.48 시간 분량을 차지한다.

## 멜로디가 있는 설화(벤스니 울기)

몽골의 설화 장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멜로디가 있는 설화, 혹은 마두금 설화다. 멜로디가 있는 설화는 마두금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서 역사소설 또는 문학작품 등을 구전음악으로 표현하는 가장 큰 형태의 장르이다. 이것은 하르친, 호르친, 그리고 자루드 호슈스 등 내공모 자치구에서 18 세기 후반 처음 생겨난 것으로서 몽골의 고대 서사시 공연 전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멜로디가 있는 설화는 몽골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이 장르만을 위한 마두금 연주자들과 설화 연행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기술과 음악적 재능을 이용하여 기록 문학을 구비 장르로 표현하는 데 적용이 되었다. 중국어나 만주어로 쓰여진 대부분의 역사들은 후르악기의 연주에 맞추어 멜로디가 있는 설화로 표현되었다. 멜로디가 있는 설화의 녹음 자료들은 서사시와 비슷한 정도의 분량을 차지한다. 구비문학 연구자이자 학자인 체렌소드놈은 멜로디가 있는 설화 장르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들은 은키와 줄루니 노민후르드(초인호르), 무-오히니 사인 울지, 바야린 차간카드 등을 포함하며, 총 자료의 8 퍼센트인 56.35 시간의 분량을 차지한다.

## 설화

일반적으로 설화의 기본적 특징은 유목민 목자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들인 행복, 평화, 갈등, 재담 등을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비판적으로, 혹은 자랑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설화의 일상적인 형태가 복원되고 디지털화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었다. 이러한 설화의 형식에는 가장 짧은 것부터 가장 긴 것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음유시인 ‘가루구이 후헨’ - 도르쥬렌과 초이후 등은 많은 짧은 설화를 이야기 하였다. 설화는

복원되고 디지털화된 자료 녹음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 사업을 통해 201.13 시간의 설화 녹음이 복원되고 디지털화되었다.

## 민요

몽골의 민요는 장가, 단가, 그리고 작사가가 있는 노래 등 세 가지 장르로 구분된다. 몽골의 장가(우르틴 두)는 유목문화에서 기원한 매우 뛰어나고 독특한 걸작이며, 몽골 유목민들인 각 지역과 민족들의 관습과 언어에 의해 그 형태가 점차 발전해 왔다. 이 민요들은 풍부한 기교와 가성, 매우 넓은 음역대와 자유로운 구성 형식을 보인다. 장가의 가사와 멜로디는 몽골의 유목민족의 철학적 관점, 이념, 상징, 우주와 자연, 인간, 동물, 조상, 국가에 대한 숭배와 존경, 부모와 자식,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담고 있다. 몽고 장가의 장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다시 분류된다. 아이잠 우르틴 두(리듬감 있는 장가), 지린 우르틴 두(전형적 장가), 그리고 베스레그 우르틴 두(짧은 장가)가 그것이다. 유명한 지역 연행자에 의해 녹음된 민요와 단가의 풍부한 자료들은 언어문학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각 민족과 지역의 민요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살아남았다. 중앙 할하, 서몽고, 부리아드, 다르카드, 차탕 지역의 소수민족들의 민요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민요들은 다른 형태의 표현물에 비해 평균적으로 1-5 분 가량 짧지만, 그 수는 매우 많다. 따라서 다른 작업에 비해 민요 자료의 복원과 분류, 디지털화 작업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총 47.56 시간의 민요 녹음 자료들이 복원되고 디지털화되었다.

## 스토리텔링 -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삶과 사회이다.

스토리텔링은 사회와 인간의 삶에 일어난 재미있고 독특한 현상적 사건들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구성해내는 구전 표현이다. 스토리텔러는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이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건은 가까운 과거에 일어났으며, 그 사건의 실제 여부가 지역 사람들에게 의해 이미 검증된 사건이다. “스토리텔링”이라는 항목 외에도 스토리텔링은 지역 방언, 전통 의례와 관습과 관련된 민속 언어, 기념물 등의 항목에도 포함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의 항목에 수록된 녹음 자료들은 총 50.51 시간이다.

예를 들어 전설(13.54), 축도(9.21), 시(10.05), 민속 드라마(1.24), 신화(3.36), 관습 및 의례와 관련된 기타 구전 표현(8.38), 샤머니즘 유산(2.23), 불교 유산(1.26), 기타 구전 표현(0.04), 리듬이 있는 시(4.32), 민속 공연 예술 및 독주 음악 녹음(6.06), 학회 발표 녹음(44.42), 공연 녹음(11.37), 기타(105.49)가 디지털화되고 분류되었다. “기타” 항목에는 음질이 좋지 않거나, 여러 사람에 의해 녹음된 자료들이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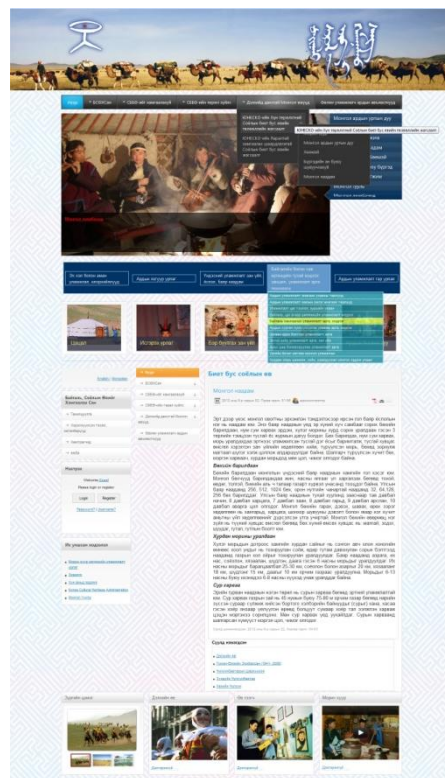


#	항목	간바타르	보물조이	부안토그토흐	합계
1	서사시	50.18	41.56	44.34	136.48
2	멜로디가 있는 설화	27.46	14.34	14.15	56.35
3	설화	50.06	85	66.07	201.13
4	전설	7	3.20	3.34	13.54
5	신화	1.36	0.02	1.58	3.36
6	노래	6.41	22.35	18.40	47.56
7	민속드라마	0.41	0.01	0.42	1.24
8	관습 및 의례와 관련된 기타 구전 표현	0.02	8.30	0.06	8.38
9	축도	2.25	3.09	3.47	9.21
10	시	3.05	3.02	3.57	10.05
11	샤머니즘 유산	0.08	0.23	1.02	2.23
12	불교 유산	0.10	1.09	0.07	1.26
13	기타 구전 표현	0.02	0.02	-	0.04
14	리듬이 있는 시	1.44	0.51	1.57	4.32
15	스토리텔링	17.09	11.05	22.37	50.51
16	학회 녹음 자료	19.8	5.28	20.06	44.42
17	공연 녹음	6.37	0.55	4.05	11.37
18	민속공연예술, 독주 음악 녹음	0.50	1.27	3.49	6.06
19	기타	41	32.26	32.23	105.49

## 웹사이트 구축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팀이 구성되었다. 웹사이트 구축팀과 사업 실행팀은 2011년 12월 말에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양자간의 합의에 도달하였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웹사이트 구축팀은 전문 웹디자이너와 무형유산 전문가, 연구자, 사진작가 등을 포함한다. 웹사이트에 포함될 주요 내용들은 팀 멤버들의 토론과 의논을 거쳐 결정되었다. 동시에 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모았다. 전문 웹디자이너들이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구상하였으며, 웹사이트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형유산 및 그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 협약, 선언, 지침, 권고, 추천, 참조, 국제 회의, 심포지움, 컨퍼런스, 세미나 자료;
- 몽골의 무형유산 및 그 보호와 관련된 국내법, 지침, 추천, 참고자료, 기타 참고문헌 및 관련 문서;
- 무형문화유산 목록, 분류체계, 항목, 간략한 소개와 사진;
- 무형유산 보유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사진;
- 언어문화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에 수록된 음성 자료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 몽골의 성지 등록, 간단한 소개 및 사진;
- 무형유산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 자료 및 참고문헌.



공식 웹사이트 주소: [www.ich.mn](http://www.ich.mn)

오픈 예정일: 2012년 7월 21일

## CD 세트 제작

본 사업의 결과로, 총 10 장으로 구성된 CD 세트가 제작되었다. 보급을 목적으로 제작된 CD 세트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사시
2. 설화와 전설
3. 축도
4. 시
5. 민속공연예술
6. 샤머니즘 및 불교 유산
7. 전통 민속 장가
8. 전통 민속 단가
9. 스토리텔링, 전통 관습 및 의례
10. 악기와 함께 하는 설화

각각의 CD에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첨부되어 있다.

약 713 시간의 녹음자료들은 700 GB 분량으로 디지털화되었다. 이 파일들은 언어문학연구소의 자료복원과 디지털화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자료들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원되고 디지털화된 700 GB의 파일 자료들은 특수한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것이다.

음성 녹음자료들의 디지털화와 분류,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은 정보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 활동 등 앞으로 더욱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활용될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몽골은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를 복구하고 디지털화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획득하였다. 언어문학연구소의 기술 및 전문분야에서의 역량도 강화되었다. 노후화된 무형문화유산 자기 테이프들은 복원되어 일반 대중들에게 보급되었다. 그 결과 일반 대중들의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 및 조사, 광고, 홍보, 그리고 전수 등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가치 있는 무형유산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고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다. 새로운 무형유산 관련 정보 기술의 활발한 활용 역시 증대될 것이다.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의 보호와 복원, 보존,

보급 및 전승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촉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사업 결과 보고회

‘2011/2012 몽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자축하는 행사가 2012년 6월 7일 언어문학연구소 회의장에서 열렸다.

교육문화과학부 대표단과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유산센터 등의 정부인사, 관련 기관 및 비정부기구 대표, 학자 및 연구자 등 60여명 이상의 관련 인사들이 본 행사에 참석하였다. 행사는 몽골의 저명한 민속 장가 연행자인 투브신자르갈의 ‘에르트니 사이칸’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언어문학연구소장인 투무르토구와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부의 자르갈사이칸이 본 행사의 기조 발제를 맡았다.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의 이사장인 우르트나산은 몽골의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한국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713시간의 노후화된 녹음 자료들을 복구하고 디지털화 한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을 표하였다.

디지털화된 녹음 자료들을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도, 선별된 자료들만을 수록한 총 10장으로 구성된 CD 세트를 100세트 제작하였다. 본 CD 세트의 제작과 보급은 연구자들과 학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며, 일반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되어 무형유산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특별히, 금보다도 더 귀한 살아있는 보물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재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기관 및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전문가들과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의 우르트나산, 언어문학연구소의 알탄투야, 노민다리, 투무르토구, 볼드 등이 본 사업에 특별히 힘써 주었다. 또한 언어문학연구소의 보롤조이와 간바타르,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의 부안토그토흐는 직접 자료의 복원과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몽골 국립 라디오방송국의 엔지니어들은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을 담당해주었고, 초루, 카투, 바야스갈란, 알리마, 윤텐바트 박사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꼼꼼한 모니터와 평가를 해주었다. 몽골 국립라디오방송국의 바트사이칸은 기술 장비와 하드웨어의 설치에 힘써 주었고, ‘차간 라바이’ 스튜디오와 ‘모그주혼’ 스튜디오의 전문가들은 CD 세트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문화유산센터의 사인바야르는 웹사이트 제작을 도와주었고 몽골의 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의 문화재청은 본 사업의 시작부터 끊임없는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